

Dogged Faith and Overabundant Grace

끈질긴 믿음과 과분한 은혜

Jae Kim 강도사 2024년 9월 22일 오전 예배

본문

Matthew 마태복음 15:21-28

Matthew 마태복음 8:5-13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여기처럼 누군가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장면은 자주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절정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길은 끈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놓여집니다. 겉으로는 주저하시는 구세주 앞에서도 끈기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유보적이실까요? 여기서 보여지는 민족적인 부대적 의미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여인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오늘 아침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하고 심지어 중추적인 순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질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에 대해 알려주는 구속사적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미도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 즉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예수님께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끈질긴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움직임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1) 절망적인 이방인의 탄원(21-22절);

- 2) 주저하시는 메시아의 수수께끼(23-26절);
- 3) 끈질긴 믿음에 대한 칭찬(27-28a절); 그리고
- 4) 주님의 사명의 확장(28b절; 참조, 24, 26절).

1) 절망적인 이방인의 탄원

장면을 먼저 그려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연막으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적인 정결함과 부정함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적인 마음의 정결함에는 관심이 없는 위선자이자 눈먼 지도자입니다(15:1-20).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고 읽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끌립니다: 그 지역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귀신에 심하게 들린 딸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 가장 먼저 듣는 것은 그녀의 민족성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녀를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막 7:26).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거와 같이 마태는 그녀를 다르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원수이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즉시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후손 중 한 사람, 즉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엡 2:12)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민족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줍니다.

또한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어머니 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여기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언어는 불륜과 지속적인 호소를 암시합니다. 공공의 예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끔찍하게 고통받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25절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25절**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딸의 불행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 많은 어머니의 탄원을 여기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구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다윗의 왕의 후계자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인의 칭호였는데, 가나안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칭호가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이방인 여인이 이방인의 영토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고통받는 딸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만남과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의 만남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백부장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둘 다 자신이 돌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둘 다 예수님께 치유를 구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둘 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 높은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8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당황스러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맞이하는 것은 바로 ‘주저하시는 메시아’입니다.

2) 주저하시는 메시아의 수수께끼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읽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는 예수님과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도움을 청하는 모든 호소에 응답하시고, 심지어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나서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마디도 없으십니다. 오직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마저 이 여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짜증이 나있었고 분노에 찬 그들의 얼굴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 ‘주님, 저 여자가 소란을 피우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게 그냥 그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여자가 듣는데서 답하십니다 –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명이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돕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위해 다른이에게는 유보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의 사명은 우리에서 방황하는 양과 같은, 또 맹인들에게 이끌리는 맹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마 **4:23**) 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 5 – 6**에서 예수님께서는 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방인 중에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롬 **11:18**).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언약 백성이라는 이점과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양자 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족장들이 속해 있었고, 육신을 따라 그들의 종족으로부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롬 (**9:4 – 5**).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오셨고 (마 **1:1**) 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인을 낙담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따르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거창한 말이나 신중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처럼 변변찮은 세 단어로 기도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한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빵이 그의 사명이라면, 유대인들은 그 사명의 적절한 수혜자인 집안의 자녀들이고 이방인은 개, 즉 부정한 동물입니다 (마 7:6 참조).

왜 이렇게 경멸적인 인종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걸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도 편견에 사로잡힌 당대의 한 사람에 불과하셨을까요? 거칠고 경멸적이며 냉정해 보이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말투나 표정, 눈빛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적대적인 것 같고 모욕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인에게 일종의 수수께끼를 주고 계십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시험하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 **house dogs**는 “집 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거친 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지붕 아래 두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길거리에 있는 개가 아니라 집 안에 있고 식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식탁에 기대어 앉을 것입니다 (8:11).

가나안 여인이 이를 포착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녀의 끈질긴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3) 끈질긴 믿음에 대한 칭찬

90년대 영화에서 한 평범한 남자가 먼 길을 떠나 한 여성을 찾아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라고 대답합니다. “100명 중 1명처럼 안 좋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백만 분의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순진하고 낙관적인 마음과 가장 밝은 미소로 그 남자는 대답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본문의 이 여성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이상하고 낙담스러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에서 여인이 파악한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침묵하셨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빵이 개에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개들이 부스러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군요! 주님, 제 나라에 오셨으니 제 절박한 간청을 아시고 거절하지 않으셨군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끈질긴 믿음 말입니다. 완강한 믿음 (**a dogged faith**). 이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믿음. 주님께서서는 그녀를 위해 작은 틈을 열어두셨고, 그녀는 믿음으로 재빨리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수수께끼를 캐치했습니다. 루터의 말을 인용하자면, 예수님을 자신의 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겸손한 태도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주인의 식탁(**master's t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개였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분의 개였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놓인 은혜의 부스러기를 기꺼이 훔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곳의 왕족이 되느니 차라리 그 분의 식탁 아래서 그리스도의 개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 년보다 낫습니다(시 84:10).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권적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부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 지배당하고,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네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높은 칭찬 중 하나를 하십니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큰 믿음은 겸손하며, 어떤 권리나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은 끈질깁니다. 모든 반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끈질긴 믿음은 고난과 어두운 섭리에 의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병의 진단 결과, 실직, 제멋대로인 가족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믿음은 그의 침묵과 응답 없는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믿음은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행동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기독교인, 더 잘 알아야 할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았나요? 그것이 당신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예수님께 달려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신뢰합니다. 그것은 끈질기며, 심지어 완고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훌륭하다고 여기시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생명선이며, 믿음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은 유대인의 불신앙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집은 엄청난 이점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거듭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 여인이 메시아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 (6:30), 그들의 두려움 (8:26), 그리고 베드로의 의심 (14:31)과 관련하여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16장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16:8)”라고 말씀하실 것 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의 믿음이 크다고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가 믿음을 칭찬한 유일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8:10). 여기서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공정한 기회, 사실상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된 자비를 주장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반면, 이방인들은 놀라운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그리고 우리도) 민족적인 이유로 버림받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요점으로 이끅니다.

4) 주님의 사명의 확장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를 붙잡는 끈질긴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즉시 그 딸을 고쳐 주시며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악마의 억압은 짧은 한마디로 멈추게 됩니다 -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행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의 확장,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변화가 아니라 구속사의 무대에서 전개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가 편협의 사례가 아니라 은혜로운 이방인 포용의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8장 5-13절에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기 위해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시며, 참으로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또는 이사야 56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모은 자들 외에 또 다른 자들도 모으리라” (요한복음 10:16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시편 87:4의 말씀은 “나를 아는 자들 중에 라합과 바벨론을 언급하노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함께 이르되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열방을 모으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 목적이 펼쳐지는 중요한 단계를 봅니다. 이 장에서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과 (15:29-31),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사천 명에게 빵을 풍성히 공급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5:32-39). 모든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의 대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향해 점점 더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국은 동쪽과 서쪽,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온 사람들,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혈통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전통도 아니요,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속죄와 칭의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입니다 (롬 1:16).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종류의 죄인을 위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깁시다.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의 끈기로 인해 기꺼이 승리하시는 이 구주께 매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놓지 말고 붙잡읍시다. 그분만이 우리의